

#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某’ 어휘 연구\*

- 東夷 관련 고문자 텍스트 DB 구축 과정의 일환 -

金經一\*\*

## 目 录

1. 들어가기
2. ‘東+某’ 어휘의 문화적 내면
3. 맺는 말

## 1. 들어가기

이 논문은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의 형태소가 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며 새로운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 어휘의 구조적 의미와 어휘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東夷의 문제는 학문의 정통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학계나 학문적 엄밀성에서 빚겨서 있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대상이다. 그러나, 학문적 분석의 엄밀함이나 단순한 역사의 흥미 모두 역사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東夷와 관련해서는, 陳壽(233-297)가 지은 『三國志』의 「魏書」 ‘烏丸鮮卑東夷傳’을 근거로 만들어진 范曄(398-445)의 「東夷傳」(『後漢書』)의 기록을 근거로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흐름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商代 갑골문에 이미 東夷를 지칭하는 東尸 어휘가

\*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 2010학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祥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教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sup>1)</sup>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東’과 ‘夷’의 자형학적, 음운학적 연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었다. 그러나 ‘東’의 자형을 살피는 과정에서 수많은 異體 글꼴들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모아 ‘東’ 字素 字形만을 집중적으로 살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왜냐하면 앞선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 상 ‘東’ 字素를 지닌 字形 14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商代 갑골문 ‘東’ 글꼴 분석에 이은 보완적 연구에서는 나머지 19개의 ‘東’의 字素를 지닌 글꼴 모두를 채집, 字形을 考釋하고 관련 갑골문 텍스트 전부를 분석한 바 있다.<sup>2)</sup>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東’의 字素를 지닌 글꼴 모두를 분석한 바 있어, 향후 東夷 관련 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될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商代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東’을 한정어로 하는 어휘, 즉 ‘東+某’의 구조를 갖는 어휘 모두를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관련 어휘 분석과 관련 어휘가 사용된 갑골문 텍스트들의 내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선행 논문들이 해당 字形들에 대한 考釋에 치우쳐 해당 字形들이 사용된 갑골문 텍스트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시 이들 字形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갑골문 텍스트를 隸定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갑골학계에서 사용하는 『殷墟甲骨刻辭類纂』<sup>3)</sup>과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sup>4)</sup>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저서들의 오류를 바로 잡으며 갑골학계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甲骨文校釋總集』<sup>5)</sup>과의 대조를 통해 隸定の 정확도를 높였으

1) 金經一, 「殷代 甲骨文을 통한 ‘東夷’ 명칭의 기원 ‘東尸’ 연구」 『中語中文學』, 2006, 21-46쪽.

2) 金經一,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 字素 字形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2011, 263-288쪽.

3) 姚孝遂主編, 北京, 中華書局, 1989.

4) 姚孝遂主編, 吉林, 吉林大學古籍研究所叢刊之五, 1988.

며<sup>6)</sup> 이 경우 따로 각주를 통해 상황을 밝혔다.

갑골문의 字形과 텍스트를 이용한 東夷의 연구는 보다 긴 호흡과 장기적인 목표 의식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때문에 세심한 자료 사용과 분석 과정은 향후 관련된 자료의 DB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 2. '東+某' 어휘의 문화적 내면

### 2.1 東土

'東+某' 어휘 중 첫 번째로 다룰 대상은 東土이다. 현재 商代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東土 표현 관련 텍스트는 다음의 여섯 개다.

癸巳卜, 爭: 東土受年? (합9733反)  
 ...東土受年? (합9736)  
 東土受年? (합36975)  
 惟東土...? 十一月. (합8736)  
 貞: 令...令禽東土人? (합7308)  
 禽伐東土, 告于祖乙于丁? 八月. (합7084)

5) 曹錦炎, 沈建華 編著,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6) 『殷墟甲骨刻辭類纂』과 『殷墟甲骨刻辭釋總集』의 隸定은 이른바 寬式을 사용하고 있어 현대 한자로의 연계가 쉽고 의미 전달도 분명하다. 반면에 『甲骨文校釋總集』은 갑골문 글꼴의 원형을 가급적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현대 한자와 거리가 많은 隸定 글꼴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히 글꼴을 잘 못 본 경우, 바로 잡는 측면에서 『甲骨文校釋總集』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隸定은 여전히 『殷墟甲骨刻辭類纂』과 『殷墟甲骨刻辭釋總集』의 방식을 따랐다. 이 경우, 각주에서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해 두었다.

위 여섯 개의 텍스트 중에서 우선 문맥이 비교적 단순한 ‘東土受年?’의 내용을 살펴본다. 東土의 ‘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를 진행한바 있어<sup>7)</sup> 다시 쓸 필요는 없으나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우선 갑골학계에서 ‘東’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정어로 받아들이는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 동서남북의 사방을 통해 자신들의 독특한 우주관을 만들어왔던 商 왕실이었기에 ‘東’을 제1기로부터 제5기까지 모두 동쪽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商 왕실 입장에서 본 동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가? 이와 관련해서 東夷의 문화 유적지를 오래 탐색해 온 逢振鏞는, 갑골문 텍스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고대의 문헌 자료와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토대로 東夷족이 활동하던 지역을 북으로는 遼東半島, 남으로는 江蘇省 북부, 安徽省 근처의 淮水 일대, 남으로는 河南省 남부, 동으로는 山東省 일대에 이른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sup>8)</sup> 한편 갑골학 텍스트를 근거로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楊升南은 商代 갑골문 텍스트 전체를 분석, 商 왕실의 농업 경작지 대부분이 현재의 山東省 臨淄縣과 江蘇省 睢寧縣, 그리고 河南省 남부와 安徽省 동북부 일대, 즉 淮水 일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sup>9)</sup> 갑골문에 보이는 方名과 干支를 통해 지역 간의 거리를 산출해 내면서 갑골문 관련 지리연구의 독보적 존재가 된 鍾柏生은 商 왕실의 세력 범위를 남쪽은 북위 32도, 동쪽은 동경 119도의 범위라고 계산해 내기도 했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東土를 商 왕실 동쪽의 山東省, 遼東半島, 江蘇省 북부, 安徽省 근처의 淮水 일대, 河南省 남부 일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역 안에는 모두 13개의 商 왕실의 농업 경작지가 있어<sup>11)</sup> 商 왕실

7) 金經一,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 제38집, 2006.6, 121-144쪽

8) 逢振鏞, 『東夷文化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8쪽.

9) 楊升南, 『商代經濟史』,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 105-106쪽

10)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臺灣, 藝文, 1989, 148-152쪽

11) 金經一, 「殷代 甲骨文을 통한 ‘東夷’ 명칭의 기원 ‘東尸’ 연구」 『中語中文學』, 2006, 21-46쪽.

이 경작 결과를 중시하던 곳으로 이 지역의 풍년 여부를 묻는 상황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東土의 정치 문화적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 지역 모두를 商 문화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의가 없었기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東土受年?'의 표현, 즉 '동쪽 땅에 풍년이 들겠는가?'의 기록이 분명한 만큼 이 지역이 商의 영향력 안에 있는, 바꾸어 말해 중국학자들이 商代의 지역과 문화권을 다룰 때 사용하는 표현대로 정말 商 왕조의 직접 통제<sup>12)</sup> 안에 있는 곳인가의 문제는 제기될 틈새조차 없어 보인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東土가 완전히 商 왕조의 직접 통제 안에 있다는 견해는 단지 가설이어야 하며, 같은 이유로 東土가 商 왕조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견해도 가설로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위의 여섯 텍스트 중의 하나인 다음의 내용 때문이다.

貞：令禽伐東土，告于祖乙，于丁？八月。(合7084)

위의 내용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점복을 담고 있다. 하나는 禽이라는 인물에게 東土를 정벌하도록 명령할까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벌 과정에서 조상의 보호를 얻기 위해 告 제사를 조상 祖乙과 上帝<sup>13)</sup>에게 동시에 진행할까의 것이다. 이 텍스트는 단 한 차례 등장하고 있지만 東土의 정치 문화적 속성을 商 왕실에 일반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태도가 신중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데

12) '商王朝直接控制', 曹斌, 「從商文化看商王朝的南土」『中原文物』, 2011, 第4期, 32쪽.  
 13) 갑골문에서 제사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丁'은 제1기 때의 商王 武丁을 지칭하는 명칭의 역할도 하고, 구체적 神威를 上帝의 역할도 하고 있다. (金經一, 「商代 갑골문 텍스트에 보이는 '丁'의 문화적 含意」『中國語文學會』, 2010. 8, 第33輯, 312쪽 참조.) 여기서 '合7084'의 내용은 제1기 때에 진행된 점복문인 만큼 여기서는 당연히 上帝로 읽어야 한다.

유용하다. 즉, 위의 텍스트는 商 왕실이 東土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서 사용되는 ‘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표현이 東土에 사용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쟁에 즈음해서 조상신 뿐 아니라 上帝에게까지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告 제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上帝는, 전쟁을 돕는 상황에 간혹 나타나고는 있으나 조상신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까지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슴7084’의 내용이 유일하다.<sup>14)</sup> 이런 상황과 함께 이 내용이 東土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당시 商 왕실과 東土 사이의 대립관계가 심각했다는 정황을 잘 전한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적 이해는 다음의 ‘슴7308’의 내용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令禽東土人? (슴7308)

위의 내용은 앞부분이 잘라져 있어 파악이 어려워 이제껏 갑골학 학자 누구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없다. 특히 꺾어문의 구조이긴 하지만 꺾어진 ‘禽’ 뒤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 東土人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즉, ‘令’이 주로 사용된 갑골문 꺾어문의 입장에서 볼 때, 생략된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골문에서 商 왕이 장수<sup>15)</sup> ‘禽’에게 명령하고 있는 ‘...令禽...’ 구조문과 ‘惟禽令...’ 구조문을 모두 살펴보았더니, 생략이 가능한 동사는 ‘以’와 ‘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다음 두 개의 텍스트를 대표로 소개한다.

丁未卜, 爭貞: 勿令禽以衆伐耶?- 정미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爭이 묻

14) 갑골문 내용 중 ‘슴6093正’도 조상신과 上帝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내용이 불완전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15) 갑골문 중에는 禽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내용도 있어 禽의 신분이 무당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텍스트로 ‘슴6768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는다. 장수 禽에게 무리를 이끌고 공방을 정벌하라고 명령하지 말까? (합26)

丁未卜, 賓貞: 勿令禽伐邛弗其受有祐?- 정미일에 짐복을 하면서 정인 賓이 묻는다. 장수 禽에게 공방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말까? (합6297)

위의 내용을 근거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사 '以'가 생략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東土人은 商 왕실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시로서는 최하층 집단으로 분류되던 衆과 같은 지위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일단 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기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겠다. 특히 앞서 살펴 본 것처럼 東土는 풍년을 공급해 하는 농경 지역일 뿐으로 특정 方名이 아니기에 동토 지역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以'가 생략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東土人을 직접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동사 '伐'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는 무엇보다, 바로 앞에서 확인한, 東土를 직접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令禽伐東土...- 장수 禽에게 東土 정벌을 명령... (합7084)'의 내용과 문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령을 받고 있는 장수가 禽이라는 점도 참고가 된다.<sup>16)</sup> 이러한 이해는 갑골문에서 최초로 확인되고 있는 東夷 세력인 '人方'이 끊임 없이 商 왕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기록들과도 부합된다.<sup>17)</sup>

16) 물론 장수 禽은 제1기에서 武丁 왕의 명령을 받아 여러 方族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 장수 禽의 기록은 제4기에도 등장해 이른바 '歷組論爭'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문의 내용과 거리가 있어 다루지 않는다.

17) 東夷 세력과의 충돌 상황을 담은 '人方' 관련 갑골문을 검토해 본 결과, 商 왕실과 충돌했던 다른 종족들은 자주 商 왕실의 영토를 먼저 침공했지만, 東夷 세력들은 商 왕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갑골문에서는 다른 종족들의 商 왕실에 대해 진행한 '侵', '征' 등과 같은 침공 기록을 볼 수 있다. 𠄎告曰土方……侵我西鄙……?- 𠄎가 보고한다. 土方이 우리 商 왕실의 서쪽 서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여럿으로 구성된 지역을 …… 침략했다. ……?(합6059)-제1기 ……五日丁未允自來……告曰土方征于我……三邑。……오일 뒤인 정미일에 과연 ……로부터 ……가 와서 土方이 우리 商 왕실 ……지역 세 개의 마을을 정벌했다고 보고했다.(합6066反)-제1기

이와 달리 東夷 세력의 경우는, 商 왕실이 일방적으로 '人方' 등에 대해 '征', 즉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필자가 殷代 갑골문에서 東夷족 정벌 관련 갑골문 약 61개를 조사한 결

결국 東土는 東夷 세력인 ‘人方’들이 활동하던 지역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지역이 商 왕실의 직접적인 통제에 들어가 있다는 갑골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商 왕실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음이 확인될 뿐이어서, 東土의 정치 문화적 성격은 商 왕실과는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새롭게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갑골문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가시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爭이 (묻는다.) 동쪽 땅에 풍년이 들까?  
(합9733反)  
...동쪽 땅에 풍년이 들까? (합9736)  
동쪽 땅에 풍년이 들까? (합36975)  
꼭 동쪽 땅에 ...까? 11월에. (합8736)  
...禽에게 동쪽 땅의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명령할까? (합7308)  
묻는다. 禽에게 동쪽 땅을 정벌하도록 명령하면서 祖乙과 상제에게 상황을 고하는 제사를 지낼까? 8월에. (합7084)

## 2.2 東方

이번에는 東方 표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東方 어휘를 지니고 있는 텍스트는 모두 8개로 다음과 같다.

惟東方受禾? (屯423)

과 東夷족을 일컫는 ‘人方’ 또는 ‘大方’이 商 왕실을 주도적으로 공격한 경우는 다음 두 경우 뿐이다.

玁益塗, ‘人方’不出于之?- 塗 지역에서 군사들을 증원할 필요가 없겠지? ‘人方’이 그곳 들로부터 공격해 나오지 않겠지?(합28012)-제3기

...來告大方出伐我師? 惟馬小臣...?- ...가 大方이 자기 지역에서 나와 우리 군대를 공격 하러 오는 것을 와서 알려겠습니까? 장수 馬를 ...할까요?(합27882)-제3기

물론 이들 내용만으로 東夷 세력과 商 왕실과의 관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商 왕실과 東夷 세력이 거주하던 東土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東方...? (합30188)  
 東方? (屯1126)  
 甲子卜, 其求雨于東方? (합30173)  
 其<sub>𠄎</sub>于東方藝, 擒? (屯2170)  
 東方曰, 析. 風曰蠱. (합14294)  
 ...東方西饗? (합28190)  
 ...有曰千森王<sub>𠄎</sub>于之八豕八豕...四羊\*四卯于東方析三牛三羊<sub>𠄎</sub>三? (英  
 1288)

먼저 '屯423'의 '惟東方受禾?'를 보면, 앞에서 분석했던 '東土受年?' 즉, '동쪽 땅에 풍년이 들겠는가?'의 문맥이 동일하며 내용 역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한 가지, 東土 표현에서는 '年'을 사용하는데 반해 東方 표현에서는 '禾'를 사용한 것이 다르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年'의 갑골문 글꼴은 '人'이 '禾'를 메고 가는 모습이고 '禾'는 익은 벼의 상형문이다. 때문에 이 두 글꼴이 곡물의 수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기면에서는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다. 즉, '年'은 제1기와 제4기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禾'는 제4기에서만 볼 수 있다.<sup>19)</sup> 다시 말해 '惟東方受禾?'의 내용은 제4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東方이라는 표현이 혹시 제4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1기에 속하는 텍스트들 중에도 東方 표현이 있다. 또 앞서 살핀 '東土受年?' 표현 중에는 '합36975'의 제5기의 표현도 있고, '...東方...?'- 합30188'의 표현은 제3기 때의 표현이어서 東土와 東方이 시기를 근거로 분할된 명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東土와 東方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로 보아도 될 것인가? 이

18) 강조를 나타내는 어조사 '惟'의 사용 여부는, 갑골문에서의 어법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문맥의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9) 이 사안은 제4기의 갑골문 내용들이 제1기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를 따지는 갑골학계의 오래된 '歷組論爭'과 관련된 것이지만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상세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방금 살핀 ‘東土受年?’, ‘惟東方受禾?’의 표현만을 놓고 보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 ‘...東方...?’- 合30188’의 표현이나 ‘東方?’- 屯1126’의 텍스트 역시 내용이 너무 짧아 적절한 단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의 두 텍스트는 東方의 표현이 東土와 다른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라는 점을 보여준다.

甲子卜, 其求雨于東方? (合30173)

위 텍스트는 ‘장차 동쪽 지역에 비가 오기를 구할까?’의 의미로 파악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東土 어휘는 비를 구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저 광범위한 공간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이다. 그와 동시에 정치 문화적 정서를 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求雨’와 연결된 東方의 표현에서는 정치 문화적 의미보다는 지역성과 방향성의 특징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의 갑골문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其<sub>𠄎</sub>于東方藝, 擒? (屯2170)

텍스트에서 사용된 ‘<sub>𠄎</sub>’의 글꼴은 현대 한자로 隸定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물을 뜻하는 ‘𠄎(망)’의 字素와 관측을 의미하기 위해 동원된 듯한 ‘目’의 字素를 통해 사냥과 관련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 ‘藝’는 동쪽 지역 어딘가에 위치한 지역임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한 ‘擒’이 사냥과 관련한 갑골문에서 포획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용문자임을 상기해 본다면, ‘其<sub>𠄎</sub>于東方藝, 擒?’의 의미는 ‘장차 동쪽 지역의 藝 지방으로 그물을 사용한 사냥을 가려고 하는데 포획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점복임을 알 수 있다. 즉, 東方이라는 표현은 앞서 東土의 표현이 정치 문화적 내면을 지닌채 사용되고 있음과는 달리 단지 동쪽이라는 방향성을 지칭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東方이 내포한 방향성은, 원시 문화의 특성상 바로 상상의 영역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이 상상의 영역에서 사고체계 속의 원형의 상징(archetypal symbol)은 만들어진다. 즉, 문화 속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종교 문화적 관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sup>20)</sup>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方 역시 이러한 문화적 궤적에서 의미를 새롭게 획득하고 있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東方曰析, 風曰𩇛<sup>21)</sup>. (합14294)

위의 갑골문은 원래 '합14294'에 있는 다음과 같은 원문의 일부이다.

東方曰析, 風曰𩇛.  
南方曰因, 風曰微.  
西方曰𩇛, 風曰彝.  
(北方曰)伏, 風曰陔.

즉, 동서남북의 사방의 이름과 그 바람의 이름이 소의 대퇴골 위에 새겨진 매우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殷代 사회 구성원들이 동서남북 사방의 공간에 神格(divinity)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유적 원형(archetype)이다. 우선 위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동방은 析으로 불리며 바람은 𩇛이다.  
남방은 因으로 불리며 바람은 微이다.  
서방은 𩇛(으)로 불리며 바람은 彝이다.  
(북방은) 伏으로 불리며 바람은 陔이다.

20) 칼 구스타브 옹 편, 李符永 外譯,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2000, 317쪽 참조.

21) 갑골문 글꼴 뽑을 따르면 지역을 뜻하는 '口'의 字素가 포함된 𩇛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합14295' 글꼴의 경우는 '口'의 字素가 없다. 따라서 갑골문 隸定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현대 한자 𩇛으로 쓴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단지 사방의 명칭과 바람의 명칭만을 읽을 수 있을 뿐 神格(divinity)이 부여된 사유적 원형(archetype)으로 읽어내기 힘들다. 하지만 관련된 다음의 텍스트를 보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辛亥卜, 內貞: 帝于南方曰微, 風夷求年? 一月.  
 貞: 帝于東方曰析, 風曰彘求年?  
 辛亥卜, 內貞: 帝于北方曰伏, 風曰毳求...?  
 貞: 帝于西方曰彝, 風曰彘求年? (合14295)

위의 내용은 바로 앞서의 ‘合14294’의 내용이 핵심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사방의 명칭들이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서 크게 구별된다. 게다가 제사의 방식 또한 商代 제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방 명칭 앞에 있는 ‘동사 帝+ 개사 于’의 구문은 ‘上帝에게 지내는 禘 제사<sup>22)</sup>를 ...에게 지낸다’는 의미로 갑골문에서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방의 명칭은 단순한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 神威(divine power)를 지닌 神格(divinity) 존재로서 商 왕실의 일상에 직접 간여하고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보면 위 갑골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신해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丙가 묻는다. 微<sup>23)</sup>로 불리는 남방신에게

22) 갑골문에 보이는 帝의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가 두 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둔바 있다. (金經一, 『容庚先生百年誕辰紀念文集-古文字研究專號』 「帝二期卜辭所見‘帝’的神威變化與其文化內含」,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8, 205-215쪽 참조) 잠시 요약하면, 帝는 먼저 모든 神格(divinity)적 존재들을 초월해 있는 절대적 존재 上帝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내용은 武丁 시기 이른바 제1기 때에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帝의 절대성은 武丁 시대, 다시 말해 제1기 때에만 나타나는 제한적 현상이다. 제2기 이후 帝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제5기 때에 잠시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祖甲 이후 그러니까 제2기 이후에는 소멸된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보듯이 上帝에게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는 동사로 사용되는 상황이다. 갑골문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隸定 때는 初文 帝를 字素로 만들어진 후기 형성자 禘를 사용한다.

23) 앞의 ‘合14294’ 갑골문과 비교해 볼 때 方向神의 이름과 바람신이 바뀌어 있다. 현재 까지 갑골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지 『山海經』 「大荒

상제에게 지내는 禘 제사를 지내며 夷로 (불리는) 바람신에게 풍년을 구할까? 1월에.

묻는다. 析으로 불리는 동방신에게 상제에게 지내는 禘 제사를 지내며 翏으로 불리는 바람신에게 풍년을 구할까?

신해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丙가 묻는다. 伏으로 불리는 북방신에게 상제에게 지내는 禘 제사를 지내면서 阨(으)로 불리는 바람신에게 (풍년을) 구할까?

묻는다. 彝로 불리는 서방신에게 상제에게 지내는 禘 제사를 지내며 紘(으)로 불리는 바람신에게 풍년을 구할까? (습14295)

내용을 종합해 보면, 商代 사회 속에서 東方은 東土와 달리 의미 영역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결국 商代에 동서남북 공간은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神格(divinity)을 종교적 존재임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商 왕실은 그 의미 영역의 차이에 근거해 명칭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이 둘이 서로 호환되지 않고 있음도 기억해 둘만한 대목이다. 사실 東土라는 구체적 영역 의미와 상상적 영역 속의 東方의 의미의 연계는 어떤 면 신화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융이 파악했던 神話素(mythologem)로서의 원형(archetype)이 신화적 성격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되어가는 '일종의 투사과정(a sort of projection)'<sup>24)</sup>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맥락은 '습14294'의 원초적(aboriginal) 텍스트와 '습14295'의 神話素(mythologem)가 겹쳐보이는 듯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찰은 東方과 관련한 다음의 갑골문을 이해하는 데 일조를 한다. 왜냐하면 매우 난해하게 보이는 텍스트지만 중간에 보이는 '于東方析'의 구문 때문이다. 우선 원문 텍스트를 소개한다.

南經」에는 '습14294'와 동일하게 '남방을 因이라 한다.(南方曰因)'의 기록이 있어 참고할만 하다.

24) C. G. Jung, 「On the Nature of the Psyche」,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79쪽에서 재인용

...有曰千森, 王<sup>ㄱ</sup>于之八豕八豕...四羊<sup>ㄴ</sup>四, 卯于東方析三牛三羊<sup>ㄷ</sup>三? (英 1288)

이 텍스트는 끊어 읽기조차 난해하지만 ‘東方析-동방의 신인 析’이 하나의 구문으로 잘라질 수 있기에 여기서부터 해독을 해나가게 되면 문장이 풀린다. 즉, 앞 뒤의 문장이 모두 제사 동사와 제물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해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일کن기를 천 개의 森 지역의 (무엇이다.<sup>25</sup>) 왕이 그곳에서 여덟 마리의 돼지와 여덟 마리의 숫 돼지, ...네 마리 양을 가지고 <sup>ㄱ</sup>하며, ... 네 마리는 <sup>ㄴ</sup>하며, 東方 神에게 세 마리 소와 세 마리 양을 쫓개어 지내는 卯 제사<sup>28</sup>)를 지낼 때 세 마리는 <sup>ㄷ</sup>할까?

그리고 東方 명칭이 종교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 즉 ‘東+方’의 어휘를 원시 종교 문화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당위성은 東方 어휘를 지닌 다음 갑골문의 내용 파악에 일조를 한다.

...東方西饗? (합28190)

위 텍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東方 뒤에 나오는 西이다. 맨 마지막의 饗은 일반적인 제사 동사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西는 무엇인가? 문장 구조면에서 볼 때 西는 제물이거나, 제사 진행 주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25) 갑골문에서 千은 숫자로 사용되고 있고 森의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으나 지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 곡식 꾸러미인 東과 연결할 수 있는 字素와 戈의 字素를 지니고 있으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제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사 명칭으로 볼 수 있다.

27)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豕의 字素가 들어 있다. 제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사 명칭으로 볼 수 있다.

28) 卯를 간지로 보아, ‘묘일에 동방신에게’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제례 관련 문례를 참고할 때 제사 동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정은 모두 商代 종교 문화의 맥락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필자는 西를 西方의 생략형으로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망에 대해 제례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데다, 잠시 후 소개할 '東+母' 부분에서도 西가 神格(divinity)을 갖춘 존재로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슴28190'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동방 신과 서방 신에게 饗 제사를 지낼까? (슴28190)

### 2.3 東邦

東邦의 어휘는 商代 갑골문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丁巳卜, 貞: 王令禽伐于東邦?(합33068)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골문에서의 邦의 쓰임새를 살펴보아야 한다. 갑골문에서의 邦은 두 가지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특정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人邦(합595正)'이다. 여기서의 '人邦'의 어휘는 단 한 차례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으나, 갑골문에서 東夷 세력을 지칭할 때 등장하는 人方<sup>29)</sup>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邦 자체가 특정 종족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두 갑골문이 해당된다.

貞: 勿求年于邦土? (합846)

貞: 勿求年于邦? (합847)

29) 金經一, 「殷代 甲骨文을 통한 '東夷' 명칭의 기원 '東尸' 연구」 『中語中文學』, 2006, 21-46쪽.

위의 두 텍스트 중 ‘슴846’에 보이는 ‘邦土’에 대해서는 陳夢家가 일찍이 邦 지역의 土神임을 밝혀둔바 있으며<sup>30)</sup> 갑골학계가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슴847’의 邦은 쓰임새만 보면, 神格(divinity)을 갖춘 존재이며 제사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邦土’가 생략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된다.

묻는다. 邦 종족의 토신에게 풍년을 구하지 말까? (슴846)

묻는다. 邦 종족의 (토신에게) 풍년을 구하지 말까? (슴847)

邦이 독립된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邦于北土歸...?- ...邦이 북쪽 땅으로 돌아올 때...? (슴332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東邦의 어휘는 동쪽 지역에 존재하던 邦族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東方의 경우는 東土와도 달리 종교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상상속의 공간을 드러내는 상징어 일뿐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 東邦과 전혀 다른 의미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 方과 邦이 上古語에서 동음임에도 글꼴을 달리해 사용되고 있음은, 이 두 글자의 쓰임새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었기에 가능하다. 여기서 걸 가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東邦은 동쪽 지역의 邦이라는 특정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東夷 관련 지명 연구에서 참고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해당 갑골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정사일에卜을 하면서 묻는다. 왕이 禽에게 동쪽 지역의 邦族을 정벌하도록 명령할까? (슴33068)

30)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2118쪽.

## 2.4 東母

‘東+某’ 구조의 어휘 중 또 하나 흥미로운 존재는 東母이다. 우선 관련 갑골문은 다음과 같은 11개이다.

壬申卜, 貞: 侑于東母西母若? (합14335)  
 貞: 于東母侑...? (합14336)  
 己酉卜, 穀貞: 燎于東母九牛? (합14337正)  
 貞: 燎于東母三牛? (합14338)  
 貞: 燎于東母三牛? (합14339)  
 貞: 燎于東母三豕...? (합14340)  
 ...燎于東母...\*三豕三...? (합14341)  
 貞: 燎...東母...黃...? (합14342)  
 ...于東母? (합14343)  
 貞: 侑于東母? (합14761)

이들 갑골문의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東母가 제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東母를 중심어로 東母가 제사 대상임을 알려주는 개사 ‘于’와 제사 동사와 제물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들 문장의 의미는 商代 갑골문에서 母로 상징되는 문화적 의미를 알아낼 때 파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商 왕실 조상들의 법적 배우자들의 神威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골문을 보면 남성 조상들이 지닌 神威는 날씨류의 경우 ‘비를 내려 줌’, ‘비를 구하는 대상이 됨’, ‘비로 화를 줌’, ‘농업류의 경우 ‘풍년 기원’, 정치류의 경우 ‘왕에게 해를 줌’ 또는 ‘묻는다. 공방의 공격 행위를 상감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낼까?’의 내용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조상의 神威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도 神威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이들 법적 배우자들이 지닌 神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商 왕실이 사내아이를 낳도록 돕는 것이다.

辛丑卜, 殷貞: 祝于妣庚?- 신축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각이 묻는다. 조상의 배우자 妣庚에게 아들을 기원하는<sup>31)</sup> 축원의 제사를 지낼까? (합13926)

그런가 하면 이들의 神威는 또 구체적인 질병의 치료와도 관련이 있다. 다음 내용을 보자.

貞: 疾趾, 于妣庚禦?- 묻는다. 발에 병이 생겼는데 비경에게 병을 몰아내는 제사를 지낼까? (합13689)

壬戌卜, 古貞: 禦疾腰妣癸?- 입술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고가 묻는다. 허리병을 몰아내는 제사를 조상의 배우자 비계에게 지낼까? (합13675正)

그런가 하면 법적 배우자들은 개별적으로 神威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때로 집단으로 神威를 행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多妣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貞: 多妣崇王?- 묻는다. 많은 조상의 배우자들이 商 왕에게 해를 줄까? (합685正)

이상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妣, 즉 商 왕실의 법적 배우자들의 또 다른 명칭은 母이다. 商代 갑골문에서 母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조상의 명칭과 병존하면서 특별히 해당 조상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부분에 있다. 다시 말해 母는 商 왕실 조상들의 법적 배우자로서 여성 조상의 혼령을 지칭하는 전용 문자인 것이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貞: 燎于王亥母豚? 二告.- 묻는다. 王亥의 배우자에게 돼지로 불 제사를 지낼까? 두 번째 점복. (합685正)

...辰貞: 其求生于祖丁母妣己?- ...진일에 묻는다. 장차 祖丁의 배우자 妣己에게 (아들) 생산을 구할까? (합34083)

31) '합13926'에 보이는 다른 텍스트 '경자일에 卜을 하면서 정인 釳이 묻는다. 婦好에게 아들이 있을까?- 庚子卜, 殷貞: 婦好有子?'의 내용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종합을 해 보면, 갑골문에서 母는 단순히 어느 자연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형태소가 아니라 왕실의 법적 배우자이면서 神格(divinity)을 지닌 존재를 특정하는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에게 神格(divinity)을 부여하고 있는 갑골문 텍스트가 조금 낯설어 보이기도 하겠으나 사실 여신 숭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존재했던 원시 종교적 특성이기도 하다.<sup>32)</sup>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다루고 있는 東母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성신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는 앞서 살핀 東方이 神格(divinity)을 지니고 있었던 원시 종교 문화적 상황과 동일해 이해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해석이 다음처럼 진행될 수 있다.

壬申卜, 貞: 侑于東母西母, 若?- 임신일에 점복을 하면서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과 서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제사를 지내면 순조롭게 할까? (합14335)

貞: 于東母侑...?-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돕는 제사를 ...? (합14336)

己酉卜, 覈貞: 燎于東母九牛?- 기유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覈이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불 제사를 지내면서 소 아홉 마리를 제물로 쓸까? (합14337正)

貞: 燎于東母三牛?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불 제사를 지내면서 소 세 마리를 제물로 쓸까? (합14338)

貞: 燎于東母三牛?-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불 제사를 지내면서 소 세 마리를 제물로 쓸까? (합14339)

貞: 燎于東母三豕...?-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불 제사를 지내면서 돼지 세 마리를 제물로 쓰며...? (합14340)

...燎于東母...豶三豕...?-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불 제사를... 수태지 세 마리와 돼지 세 마리를...? (합14341)

貞: 燎...東母...黃...?-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불 제사를... 황색...? (합14342)

...于東母?-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합14343)

貞: 侑于東母?- 묻는다.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돕는 제사를 지낼까? (합14761)

32) 낸시 헤더웨이 지음, 신현승 옮김, 『세계신화사전』, 서울, 세종서적, 2007, 107-108쪽.

## 2.5 東寢

東寢의 어휘는 갑골문의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貞: 今二月宅東寢? (합13569)  
 癸巳卜, 賓...: 惟今二月宅東寢? (합13570)

寢의 의미에 대해서 陳夢家는 제사와는 무관한 왕의 거주 장소라고 해석하고 있다.<sup>33)</sup> 이런 해석은 위 갑골문의 내용에서도 동사 宅을 ‘거주하다’로 보면서 東寢의 어휘와 연결되어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寢을 제사 공간으로 볼 수도 있는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sup>34)</sup>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𠄎剛于寢?  
 辛巳貞: 其剛于祖乙寢? (屯南1050)

우선 ‘𠄎剛于寢?’의 문장에서 寢이 개사 ‘于’ 뒤에 놓여 장소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사 앞에 있는 ‘剛’은 분명 제사를 나타내는 동사로 적지 않은 갑골문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어지는 ‘辛巳貞: 其剛于祖乙寢?’의 내용에서 보듯이 寢이 조상을 나타내는 祖乙을 한정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앞에 제사 동사 剛이 장소를 의미하는 조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 寢을 단순한 왕의 거주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즉, ‘辛巳貞: 其剛于祖乙寢?’의 내용은 ‘신사일에 묻는다. 장차 剛 제사를 조을의 寢에서 지내도 될까?’가 된다. 그리고 이때의 寢은 분명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廟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33)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1993쪽.

34) 이 문제는 郵籟이 가장 먼저 제기했다. (『卜辭考釋數則』 『古文字研究』第六輯, 187쪽 참조) 그러나 갑골문 인용에서 郵籟은 剛을 剛으로 隸定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또 하나 '습13569'와 '습13570'에 보이는 宅의 의미 역시 '거주하다'로 단순화시키기 힘들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宅이 제사를 의미하는 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癸丑卜, 甲寅侑宅土燎牢, 雨?- (屯4400)

문맥에서 보듯이 宅은 분명 제사 대상인 土神 앞에 있고, 土神 뒤에는 다시 제사 동사와 제물이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 텍스트는 宅이 제사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습13569'와 '습13570'의 내용을 단순히 '거주하다'의 의미로 제한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사 동사일 경우, 뜻은 무엇일까를 추정해 볼 때 아마도 택지 조성의 의미일 수 있다.<sup>35)</sup> 이렇게 되면, 뜻은 '신축 일에 점복을 한다. 갑인일에 도움을 청하는 제사와 택지를 선택하는 제사를 土神에게 지낼 때 우리에서 기를 소를 제물로 불 제사를 지낼 때 비가 올까?'가 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습13569'와 '습13570'에 보이는 東寢 관련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문는다. 이번 2월에 동쪽 방향에 제사 장소를 짓기 위한 택지 선택의 제사를 지낼까? (습13569)

계사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賓이.... 이번 2월에 동쪽 방향에 제사 장소를 짓기 위한 택지 선택의 제사를 지낼까? (습13570)

## 2.6 東室

東室의 어휘는 갑골문의 한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東室...(습13556反)

35) '宅은 선택하다의 의미이다. 길한 곳을 골라 건축을 하기 위함이다. (宅, 擇也. 擇吉處而營之也.)' 『釋名』

室의 경우는 앞의 寢처럼 장소 명사이긴 하지만 의미는 비교적 단순하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흔하게 보이는 ‘大室(합30370)’, ‘中室(합27884)’, ‘新室(합13563)’, ‘盟室(英2177)’ 등의 어휘에서 보듯이 室이 왕실이 소중하게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가? 다음의 갑골문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于新室奏?- 새로 지은 실내에서 연주를 할까? (합31022)  
 乙酉卜祝貞: 惟今夕告于南室?- 을유일에 卜을 하면서 정인 祝이 묻는다.  
 반드시 오늘 저녁에 남실에서 (신령에게) 상황을 고하는 제사를 지내야 할까? (합24939)

즉, 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제사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앞서 ‘南室’에서 보듯이 室은 사방에 배치된 제사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 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東室’과 함께 ‘西室(합30372)’의 표현도 있어 존립이 가능해진다. 단지 현재 갑골문에서 ‘北室’의 어휘는 찾을 수 없다. 종합해 보면 ‘...東室...(합13556反)’의 텍스트는 제사 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 2.7 東鄙

東鄙 관련 갑골문은 모두 4개로 다음과 같다.

沚沚告曰, 土方征于我東鄙, ...二邑, 邛方亦侵我西鄙田. (합6057正)  
 ...呼...東鄙, 彳二邑, 王步自沚于沚司...翌夕, 壬寅, 王亦終夕禍? (합6057反)  
 癸巳卜, 永貞: 旬無禍? ...惟丁. 五日丁酉允有...于我東鄙... (합6058正)  
 ...東鄙<sup>36</sup>...? ....日辛丑夕翌... (합6060反)

36) 『甲骨文校釋總集』에서는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넣고 있으며 ‘東鄙’ 앞에 ‘我’를 더해 놓았다. (曹錦炎, 沈建華編著,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750쪽 참조) 그러나 원판을 확

陳夢家是 鄙를 商代의 거주지인 邑이 여러 개 합쳐진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sup>37)</sup> 갑골학계는 이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鄙가 邑보다 큰 단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합6057正'에서 보듯이 東鄙 구역 안에 적어도 두 개의 邑이 속해있는 기록을 통해서다. 즉, 東鄙란 동쪽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마을 여럿을 포괄해서 부르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합6057正' 후반에 보이는 西鄙는 서쪽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마을 여럿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위의 갑골문 텍스트는 다음처럼 해석될 수 있다.

沚沚이 고하기를, 土方이 우리 商 동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여럿으로 구성된 지역을 공격했다. ... 두 개의 읍을... 邶方 역시 우리 商 서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여럿으로 구성된 지역과 경작지를 침범했다. (합6057正)

... 명령하여... 우리 商 동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여럿으로 구성된 지역을... 두 개의 마을을 공격했다. 왕이 보병과 함께 沚로부터 沚 지역 의 司에게 ... 저녁에 날이 흐려졌다. 임인일에 왕이 亦의 제례를 하면 끝날 때 저녁에 화가 있을까? (합6057反)

계사일에 점복을 하면서 정인 永이 묻는다. 열흘간 화가 없을까? ... 정일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일 후 정유일에 정말 있었다. ...우리 商 동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여럿으로 구성된 지역으로...(합6058正)

...商 동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여럿으로 구성된 지역...? ...일 뒤 신축일 저녁에 날이 흐렸다. (합6060反)

## 2.8 東單

東單 어휘가 사용된 텍스트는 모두 3개로 다음과 같다.

惟東單用? (합28115)

인해 볼 때 '東鄙'의 글꼴은 확인이 가능하다.

37)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1968쪽.

庚辰, 王卜, 在<sup>𠄎</sup>\*貞: 今日其逆旅以...于東單無災? (合36475)  
...東單工? (屯4325)

우선 單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單과 犬을 字素로 하는 狩가 갑골문에서 사용되고 있어 사냥 무기의 상형문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單이 방향사와 함께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나 壇, 또는 臺의 가차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8)</sup> 그러면 이 單은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單이 지닌 문화적 성격을 유추해 낼 수 있는 텍스트는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내용을 보자.

己卯卜, 于南單立, 岳雨? (南屯4362)

위 텍스트는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 于+ 방향사+ 單+ 제사 동사’의 구조와 神威(divine power)를 지닌 ‘岳神이 비를 내릴까’ 여부를 묻는 두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單은 분명 제사 장소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는 于省吾 등이다.<sup>39)</sup> 때문에 위 내용의 해석은 ‘기묘일에 점복을 한다. 남쪽의 單에서 立 제사를 하면 岳神이 비를 내리까?’가 된다. 그런가 하면 다음의 갑골문은 또 다른 성격의 單을 보여주고 있다.

庚辰貞: 翌癸未<sup>𠄎</sup>西單田, 受有年? 十三月. (合9572)

위 텍스트에서 주의를 끄는 부분은 ‘<sup>𠄎</sup>西單田’이다. 여기서 ‘<sup>𠄎</sup>’의 글꼴은, <sup>𠄎</sup>의 글꼴 원형에서 볼 수 있듯이 경작지에 인분으로 시비를 하고 있는 의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갑골학계가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인분으로 시비를 하고 있는 장소로 연상되는 ‘西單’의 의미가

38)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3072-3080쪽 참조.

39)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3072-3079쪽.

중요해 진다. 兪偉超는 이 텍스트를 근거로 單은 하나의 취락군의 명칭으로 일종의 사회조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40)</sup> 이렇게 될 경우, 해석은 '경진일에 묻는다. 다음 날 계미일에 서쪽에 위치해 있는 취락군의 경작지에 인분으로 시비를 하게 되면 풍년을 얻게 될까?'가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單은 商 왕실 외곽에 위치한 하나의 지역으로 경작지와 관련한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농경의 일환으로 인분으로 시비가 진행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관련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동쪽 지역의 壇/취락군에서 (어떤 행사 진행)을 할까? (합28115)  
 경진일에 왕이 𠄎<sup>41)</sup>에서 점복을 하면서 묻는다. 오늘 장차 ...을 이끌고 오는 군대를 맞이하는데, 동쪽 지역의 壇/취락군에서 ... 재해가 없을까? (합36475)  
 ... 동쪽 지역의 壇에서 工典의 제사를 할까?/취락군으로부터 공납이 들어올까? (屯4325)

## 2.9 東沚

東沚의 어휘가 사용된 텍스트는 다음의 8개이다.

...虎...方其涉河東沚, 其...? (합8409)  
 𠄎于河東...沚尊卽祐...? (합34255)  
 更子...賓貞: ...涉于東沚? (합8346)  
 貞: 我勿涉于東沚? (합8345)  
 ...貞: 亞以王族暨黃...王族出...<sup>41)</sup>亞庚...東沚? 在...(합14918正)  
 ...東沚若? (합34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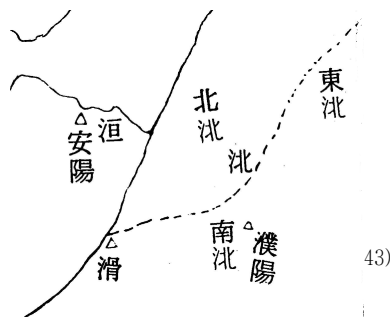
40)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3080쪽.

41) 갑골문에서 女를 字素로 하는 글꼴이 100여 개가 넘지만 해당 글꼴은 이곳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며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王其涉東泚田三麓...? (屯2116)

在東泚尊...? (懷1648)

일단 앞서 ‘東+某’의 표현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東泚이 商의 동쪽에 있는 지명임은 분명하다. 이 지명에 대해 饒宗頤는 『詩經』 등에 나오는 邶로 보기도 한다.<sup>42)</sup> 하지만 ‘屯2116’의 ‘王其涉東泚’의 내용에서 보듯이 東泚은 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泚로 隸定한 갑골문의 자형인 泚이 물 氵의 字素를 지니고 있어 泚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구체적으로는 강물의 이름임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슴8409’, ‘슴34255’의 구문에서 볼 수 있듯이 東泚 앞에 河 즉 황하가 있고 그 앞에는 강물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사 涉이 있다. 이 구문들은 東泚은 황하를 건넌 상태에서의 동쪽 강물,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 버린 물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갑골문 지리학자 鍾柏生은 지금의 安陽을 오른쪽으로 감고 도는 황하 동쪽에 구체적 위치까지 아래에서처럼 그려 넣고 있다.



鍾柏生의 견해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정밀한 고증이 필요하겠으나 황하의

42)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147쪽.

43)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臺灣, 藝文 1989, 92쪽.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빛나간 추론은 아니라고 해야겠다.

위의 갑골문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은 東:꺈 지역이 商 왕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점이다. '슴14918正'에서는 왕족이 東:꺈으로 가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살핀 '東+某' 지역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東:꺈 지역은 황하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곳임에도 왕족이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屯2116'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텍스트에는 '王其涉東:꺈' 즉 왕이 장차 東:꺈 강물을 건너는 기록이 나오는데, 강을 건너는 이유가 '田' 즉 사냥을 위해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東:꺈 너머 지역은 商 왕이 직접 건너가 동물을 포획할 만큼 매력 있는 사냥터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東:꺈은 商 왕실 동쪽, 황하를 건너 지역에 위치한 강물이었으며 강물을 건너는 곳에 풍부한 사냥터가 전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슴14918正'에는 점복의 간지일은 보이지 않으나 왕족이 東:꺈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庚'의 간지가 나타나고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단편의 기록은, 商 왕실에서 東:꺈 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도, 걸어서 10-12일 이내의 거리일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sup>44)</sup> 왜냐하면 갑골문에서 서로 다른 날짜를 뜻하기 위해 사용되는 간지가 다음 旬日일 경우 '來' 등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을 근거로 할 때 해당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某이/가... ...종족이 장차 황하를 건너 東:꺈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차...?  
(슴8409)  
황하 너머 東:꺈 강물 근처의 어느 곳<sup>45)</sup>에서 簋 제사를 하지 말아야 도움

44)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臺灣, 藝文 1989, 92-99쪽 참조.

45) 원문에서 東과 某 사이에 글자가 비어 있다. 아마도 이 지역 안의 작은 지역을 특정한 글자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을 ...할까? (합34255)  
 경자일에 ... 정인 賓이 묻는다. ... 東泚를 건널까? (합8346)  
 묻는다. 商 왕 내가/我方이 東泚를 건너지 말까? (합8345)  
 ...묻는다. 亞方이 왕족과 황...을 수행해서... 왕족이 나가서,, 『』와 亞方  
 이 경일에<sup>46)</sup> ... 東泚을 ...할까? (합14918正)  
 ...東泚 지역으로 ...하면 순조로울까? (합34710)  
 왕이 장차 東泚 지역을 건너 사냥을 가서 세 번 사슴류 사냥<sup>47)</sup>을 하면  
 『』...하고 ...할까? (屯2116)  
 狝 근처의 東泚 지역에서 『』에게 尊 제사를 지낼까? (懷1648)

## 2.10 東巫

東巫 어휘가 사용된 텍스트는 1개로 다음과 같다.

...帝東巫? (합5662)

간지 등이 생략된 이 텍스트는, 앞에 존재하는 帝의 의미와 쓰임새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다. 갑골문 텍스트에서 帝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알려진 바다. 하지만 帝는 때로 후대 문헌에 보이는 禘의 가차자로 동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甲寅卜, 其帝方一羌, 一牛, 九犬?- 갑인일에 卜을 한다. 장차 사방 신에 대해 禘 제사를 진행할 때 한 명의 羌族과 한 마리 소, 그리고 아홉 마리의 개를 사용할까? (합32112)  
 乙酉卜, 帝于方, 用一羊?- 을유일에 卜을 한다. 사방 신에 대해 禘 제사를 진행할 때 한 마리 양을 사용할까? (法CF B348)

46) 문맥상 庚이 인명, 즉 祖庚이나 母庚의 생략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7) 麓은 지명으로도 사용됨.

48) 雷煥章, 『法國所藏甲骨錄』, 臺北, 利氏學社, 1985, 28쪽.

이상의 텍스트는 帝가 분명 이중 목적어를 취하며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禘의 가차자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帝가 禘의 가차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주로 사방 신을 의미하는 方을 간접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필자가 상세한 분석을 해놓았기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sup>49)</sup> 이러한 상황은 '帝東巫'의 텍스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즉, 東巫를 뒤에 직접 목적어가 생략된 간접 목적어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巫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나가 관건이 된다. 갑골문 텍스트에서 巫가 사람, 또는 제사 동사로 사용되는 예가 있지만 여기서는 神格을 지닌 제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50)</sup> 또 '巫에게 禘 제사를 지낼까?-帝于巫?(합32012)'의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帝北巫(합34157)'의 텍스트처럼 '帝東巫'와 정확하게 대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巫는 禘의 가차자로서의 帝가 사방 신에게 지내는 제사 동사인 점을 고려할 때, 또 東과 北이라는 방향사와의 결합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사방신의 神格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해진다.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면 해당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帝東巫?- ... 동쪽을 관장하는 신격 존재에게 禘 제사를 지낼까? (합 5662)

### 3. 맺는 말

東夷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의도들이, 역사적 입장에 있든, 문화적 입장에 있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문자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결 조건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49) 金經一, 「商代 갑골문 텍스트에 보이는 '丁'의 문화적 숨意」 『中國語文學誌』, 中國語文學會, 2010, 8, 301-304쪽

50)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2923쪽.

서 東夷와 관련한 ‘東+某’ 어휘의 문화적 내면을 살펴보았다.

정리를 해 보면, 商代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東+某’의 어휘는 ‘東土’, ‘東方’, ‘東邦’, ‘東母’, ‘東寢’, ‘東鄙’, ‘東單’, ‘東泚’ 등의 여덟 개다. 이들 어휘들을 해당 텍스트, 그리고 관련된 텍스트들을 근거로 파악한 문화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東土는 東夷 세력인 ‘人方’들이 활동하던 지역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商 왕실의 직접적인 통제에 들어가 있다는 갑골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商 왕실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음이 확인될 뿐이어서, 동토의 정치 문화적 성격은 商 왕실과는 별개의 독립적 범주에서 새롭게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東方은 東土와 달리 의미 영역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결국 商代에 동서남북 공간은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神格(divinity)을 종교적 존재임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商 왕실은 그 의미 영역의 차이에 근거해 명칭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이 둘이 서로 호환되지 않고 있다. 東土라는 구체적 영역 의미와 상상적 영역 속의 東方의 의미의 연계는 어떤 면 신화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용이 파악했던 神話素(mythologem)로서의 원형(archetype)이 신화적 성격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되어가는 ‘일종의 투사과정(a sort of projection)’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東邦의 어휘는 동쪽 지역에 존재하던 邦族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東方의 경우는 東土와도 달리 종교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상상속의 공간을 드러내는 상징어일뿐으로 東邦과 전혀 다른 의미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 方과 邦이 上古語에서 동음임에도 글꼴을 달리해 사용되고 있음은, 이 두 글자의 쓰임새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東母의 경우, 갑골문에서 母가 왕실의 법적 배우자이면서 神格(divinity)을 지닌 존재를 특정하는 형태소임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동쪽 방향을 담당하는 여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 東寢은 과거 제사와는 무관한 왕의 거주 장소라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본 논문은 관련 텍스트를 근거로 寢을 제사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東鄙는 동

쪽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마을 여럿을 포괄해서 부르는 명칭인데, 이는 鄙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邑을 포괄하고 있는 텍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東單의 單은 商 왕실 외곽에 위치한 하나의 지역으로 경작지와 관련한 장소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농경의 일환으로 인분으로 시비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東洿은 商 왕실 동쪽, 황하를 건넌 지역에 위치한 강물이었으며 강물을 건넌 곳에 풍부한 사냥터가 전개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분석은, 商代 갑골문을 근거로 東夷 문화의 실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장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제 이 여덟 개의 어휘 분석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정보와 관련 텍스트들의 확보를 통해 향후 東夷 연구가 분명한 실록의 텍스트를 근거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의 한 축을 구축했다 하겠다.

## 參考文獻

- 陳夢家,『殷虛卜辭綜述』,臺灣,大通書局,1971
- 郭沫若等,『甲骨文合集』,北京,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1982
- 胡厚宣,『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下』,河北,河北教育出版社,2002
- 黃天樹,『殷虛王卜辭的分類與斷代』北京大 博士學位論文,臺灣,文津出版社,1991
- 劉堯漢,『中國文明源頭新探』,雲南,雲南人民出版社,1993
- 李孝定,『甲骨文字集釋』,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82
- 羅振玉,『三代吉金文存』,臺北,洪氏出版社,1973
- 屈萬里,『尚書集釋』,臺灣,聯經出版社,1986
- 饒宗頤,『甲骨文通檢』總4冊,香港,中文大學,1989~1995
- 容庚,『金文編』,北京,中華書局,1985
- 艾蘭(Sarah Allan),汪濤 譯,『龜之迷-Myth, Art, and Cosmos in Early China』,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2
- 沈建華,曹錦炎,『新編甲骨文字形總表』,香港,中文大學,2001
- 沈培,『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臺灣,文津出版社,1992
- 王云五,『詩經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1988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北京,世界圖書出版,2000,
- 姚孝遂·肖丁 合著,『小屯南地甲骨考釋』,北京,中華書局,1985
- 姚孝遂主編,『殷墟甲骨刻辭類纂』,北京,中華書局,1989
- 姚孝遂主編,『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吉林,吉林大學古籍研究所叢刊之五,1988
- 楊升南,王宇信,『甲骨學一百年』,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9
- 于省吾,『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6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小屯南地甲骨』,北京,中華書局 1983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殷墟花園莊東地甲骨』,雲南,雲南出版社,2003

<Abstract>

A study on the vocabularies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某'  
in the Oracle-Bone Inscriptions

Kim, Kyungil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cultural meaning in the vocabularies that consists of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某'. I have been researching the trace related to the 'Dongyi(東夷)', and in a previous article "A Study on the Word 'Dongshi(東尸)', the Origin of the Name 'Dongyi(東夷)' i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of the Yin Dynasty", I proved that the name 'Dongshi(東尸)' in Yin Oracle Bone Inscriptions was the origin of 'Dongyi(東夷)'. During the research, I found that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vocabularies are intimately linked with the record of 'Dongyi(東夷)', and is crucial to dig into the real history of 'Dongyi(東夷)'.

In this context, I collected ten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某' vocabularies like 'Dongtu(東土)', 'Dongfang(東方)', 'Dongbang(東邦)', 'Dongmu(東母)', 'Dongqin(東寢)', 'Dongshi(東室)', 'Dongbi(東鄙)', 'Dongdan(東單)', 'Dong\*bei(東洑)', 'Dongwu(東巫)' and analyzed them. 'Dongtu(東土)' means the east territory of Shang. In terms of usage, 'Dongfang(東方)' seems to be compared with 'Dongtu(東土)', but unlike 'Dongtu(東土)', it is used in the divine field. 'Dongbang(東邦)' is a name of a tribe located in 'Dongtu(東土)' area. 'Dongmu(東母)' is the maternal divinity. 'Dongqin(東寢)' is the place located in 'Dongtu(東土)' where the king of Shang performs sacrifices to the ancestors. 'Dongshi(東室)' is the royal place where the instruments are played, and the king of Shang performs sacrifices to the gods. 'Dongbi(東鄙)' is a group of village. 'Dongdan(東單)' seems to be a place related with the agriculture. 'Dong\*bei(東洑)', the pronunciation of 洑 can not be sure, is the small effluent from Yellow river which is located in the east of Yellow river. 'Dongwu(東巫)' is the divine power which controls specially the East.

These ten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vocabularies will be valuable for exploring the ancient culture of 'Dongyi(東夷)' further.

Key Words : Oracle-Bone Inscriptions,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某, Cultural meaning, Dongyi(東夷), East territory of Shang

투 고 일 : 2012. 1. 10. / 심 사 일 : 2012. 1. 20. ~ 2012. 2. 10. / 게재확정일 : 2012. 2. 17.